

광주시, '화재 취약 시내버스' 문제점 현대차에 공식 제기한 배경은

“불안한 운행 더 이상 안돼” 전면 실태조사 착수

버스업체, 차량 구입·AS 차질 우려에 불만 제기 못하고 시에 원인 규명 호소...유료 5 차종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국과수 등 공조 대응 방침...현대차 “본사 차원서 검토”

광주시가 시내버스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광주일보 8월 12일자 1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동종 버스를 운행중인 서울시 등 전국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버스 제조사측이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측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 광주시내버스 일부 차종에 대한 화재 취약성이 부각된 데는 해당 시내버스를 몰고 다닌 운전기사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자동차 제조사측이 정확한 원인 조사에 소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운행 중 화재 발생에 대한 위기감을 떨쳐내지 못한 버스업체가 직접 광주시를 찾아 원인 규명을 호소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내버스 D회사 관리부장 A씨는 지난달 20일 회사측이 보유한 3개 버스 차종의 엔진룸 사진 10여장을 갖고 광주시 담당부서를 찾았다. A씨 회사의 현대차 ‘유료 5’ 차량은 전날 오후 1시 22분께 광산구 목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이 났다.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뒷부분을 삼시간에 태우고 7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정차중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30명은 재빨리 버스를 벗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5년된 버스 엔진룸의 경우 버스회사가 정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현대차 쪽은 원인 조사도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차량 배상도 못해준다고만 하니 답답해 미지겠

다”고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호소했다. 광주시는 버스 엔진룸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운영에 매년 4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만큼 화재 원인을 정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10개 업체를 돌며 차종 별 엔진룸을 비교해 현대차 ‘유료 5’ 차종의 경우 다른 2개 차종과 다른 구조적 취약성을 발견했다. 광주시는 엔진의 출력을 높여 주는 터보장치와 가연성 물질이 인접하게 설계돼 운행 중 불이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조사에 나선 정비전문가들도 운행 과정에서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엔진룸 터보 장치 결합으로 장치 내 오일

이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로 흘러내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버스업체의 경우 버스 공급률이 90%에 이르는 사실상 독과점인 현대차측에 잘못 보였다가 버스 공급 및 AS 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 등을 들어 정확한 원인조사나 대책 등을 강하게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호남 상용고객지원팀에 최근 화재가 발생한 버스와 동일한 700여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 “본사도 알고 있어야 할 문제”라며 “본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답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소시효 50일 남기고 9억원 사기 4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영세상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도망간 혐의(사기 등)로 모식자재 유통업체 사장 김모(4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30일께 담양군 대전면에 모 식자재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과자 도매상 박모(52)씨 등 광주·전남·전북 과자·화장지·술 영세 도매상인들로부터 9억60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공소시효(부정수표단속법 7년·사기 10년)만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는 점을 노리고 도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피해금액 중 5억5000만 원은 공소시효가 최대 50일 가량 남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식중독 사고 잇따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광주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식중독이 대부분 생고기 등 익히지 않은 음식 탓인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 모 식당과 서구 치평동 모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로 모두 2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두암동에 있는 식당에서는 지난달 29~31일 생고기 비빔밥을 먹었던 손님 19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식당은 29일 2명을 시작으로 30일 1명, 31일 16명 등 첫 환자 발생 후 3일간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치평동에 있는 식당에서도 생고기 등을 먹은 일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암살’ 표절 논란 법정싸움으로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귀추가 주목.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설가 최정림(64)씨는 최정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최씨는 “주인공인 여성 저격수인 점과 지구 선봉이 암살단을 파견해 전열파를 제거하는 점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 해당 제작사 측은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등 저격수와 거리가 멀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연합뉴스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여행 연습 ‘제5회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하루 앞둔 12일 보성군 다향체육관에서 단원 400명이 여행 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목포에서 창단된 드림오케스트라엔 목포·보성·담양 등 6개지역 청소년 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는 13일 오후 5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어느 잣대에?

광주지법 판사따라 무죄-유죄 선고 엇갈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소집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은 어느 잣대에 맞춰야 할까.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예측가능한’ 일관성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비슷한 범죄에도 유·무죄 뿐만 아니라 구속 여부에도 판관도 달라 재판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다.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등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에도 입영을 거부한 신도 3명에게 무

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 유죄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3명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2명은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뒤 법정 구속됐다. 현재 1년6월 이상의 형을 살던 다음에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전남지방법무청은 최근 3년 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146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4일 임시공휴일 광주 민자 순환도로는 통행료 받아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시는 12일 민자고속화도로인 순환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정상 요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인 14일 민자순환도로(총 길이 37.66km) 1구간(소태영영소·5.67km)과 3-1구간(송암영소·3.53km), 4구간(유덕영영소·4.58km)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민자도로는 정부가 발표한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관광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소대로 소형(1200원)·중형(2300원)·대형(2900원) 등 차종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대단위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4면유리, 전망좋은, 광고효과 최고!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사거리 코너
- 7층중 7층 120평, 구 빅스 Bar 자리 레스토랑/노래홀등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6억 3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 3천만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19평 - 2013년 신축,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매매-1억(8월 20일 한) (시세/분양가-1억 3000만원 정도)

★ 경매 낙찰금액과 비슷 ★

빌라 "급매"

■ 34평 - 2013년 신축,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매매-1억 6000만원(8월 20일 한) (시세/분양가-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 010-3605-5000

담양·관광 특구

펜션, 전원주택단지, 박물관 등 적합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관광시설 자금 유치 가능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지역 주위, 전원주택단지/무인텔등 개발중!
- 추가 형질변경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